

### 연임위한 온갖 꼼수로 대학망신 시키더니...

## 조선대이사 '맥주병 폭행' 시뮬레이션

임기 만료 후에도 반년을 넘도록 신규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거듭했던 조선대 이사 회가 이사회 간 폭력 사태까지 빚어 대학과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대학의 품위가 심각하게 손상돼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이사회에게 맥주병을 던져 팔에 상처를 입힌 조선대 이사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6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R노래방에서 같은 학교 이사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을 던져 A씨의 왼쪽 팔이 찢어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고 직후 조선대병원

이사 3명 회의 뒤 치평동 모 노래방서 술마시다 새 이사선임 논쟁 중 맥주병 던져 12바늘 꿰매 지역민들 "언제까지 학교 먹칠할거냐" 맹비난

응급실에서 팔의 상처를 12바늘 꿰맸다. A씨는 상처 치료 후, 폭력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노래방에서 나간 뒤였고 A씨는 가해자인 B씨가 '사회 친구'라며 그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B씨는 병을 던진 뒤 바로 사라져 버렸고 27일 오후까지 사고조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상처가 비교적 깊은 점을 중시, B씨가 깨진 맥주병을 던진 것인지, 아니면 던져진 맥주병

이 깨지면서 상처를 낸 것인지 등 사건 당사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캐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이사회 직후 이사 전원이 회식한 뒤, 3명의 이사가 따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과정에 이사 선임에 대한 논쟁을 벌이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선대 이사들은 모두 임기 만료된 상태로 연임을 위해 대립하면서 차기 이사진을 반년 이상 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공식인 이사 한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폭력사태까지 벌어져

학내외가 술렁이고 있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반년 이상 연임을 하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급기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까지 휘둘러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이사 8명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개방이사 선임(3명)과 기존 이사 8명 중 2명을 제쳐 6명을 선임(연임), 차기 이사 9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7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사 모두가 연임을 원하는데 따른 것으로, 결석 이사 1명에 대한 선임도 이견을 보이는 등 파행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인화학교 '세탁기 폭력' 가해자

#### 광주지법, 집행유예 선고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으로 알려진 이른바 '세탁기 폭력'의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27일 가중 중인 세탁기에 철강장에 학생의 신체 일부를 집어넣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여·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탁실에서 나무막대로 맞고 팔을 강제로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법정까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세탁기 종류, 세탁물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 하순계 인화원 세탁실에서 당시 14살인 B양을 나무막대로 때리고 세탁기를 가동시킨 뒤 머리와 팔을 강제로 집어넣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큰뿔양 폐사 숨기려

## 멸절 한 '무플론' 3마리 죽였다

### 광주 우치동물원, 3년 넘게 '쉬쉬' ... '동물 죽인 동물원' 파문

광주 우치동물원이 서울대공원에 버려온 큰뿔양 세 마리가 숨진 사실을 3년 넘게 숨겼다.

동물원은 이 과정에서 폐사된 큰뿔양 개체 수를 맞추기 위해 '멸절한' 무플론 세 마리를 폐사시켰다. 동물원을 보호하고 키우는 동물원의 폐사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 2007년 3월 27일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마리당 50만~100만 원 상당의 큰뿔양 세 마리를 빌렸다.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불거리를 선사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2009년 3월 26일까지 2년의 임대 기간을 설정했다.

그러나 큰뿔양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지, 이듬해 1월부터 3월까지 잇따라 병사(病死)했다.

하지만 우치동물원은 임대 동물의 사망 사실을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알리지 않았다. 도리어 서울대공원에 요청, 2009년 3월 27일부터 2011년 3월 26일까지 임대 기간을 늘렸다. 이후에도 추가로 한 차례 더 임대 기간을 늘렸고 연장한 지 한 달여 지난 2011년 4월 22일에야 서울대공원에 폐사 사실을 알렸다.

뿔양이 폐사된 지 3년이 만이다. 우치동물원은 "임대된 동물들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다는 신뢰관계를 고려했다"고 폐사 사실을 숨긴 이유를 해명했다.

우치동물원은 이 때 무플론 세 마리를 몰래 폐사 처리했고 이 사진을 서울대공원에 큰뿔양 폐사 사진이라며 보냈다. 아픈 데도 없는 건강한 무플론 세 마리를 숨지게 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사진을 허위로 보냈다는 점에서 지나치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동물원 내 무플론 개체 수가 많아 자칫 서로간 영역 다툼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사육 중인 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동물원 설명이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우리 동물원에서 잘 키울 것으로 믿고 임대해 준 것인데, 신뢰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누장 보고를 했다"며 "임대 동물의 경우 폐사 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당 동물원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지만, 폐사된 동물 사진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동물원에 보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승촌보 인근 영산강 점검

27일 오전 광주시 남구 승촌보 부근 영산강에서 4대강사업 광주전남공동행동과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관계자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문제, 호안 붕괴와 하상 세굴 등 비정상적인 침식과 퇴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장 2명 임명제청 거부 당했다

### 광주교육청 부실 심사로 초유의 사태 불러

광주교육청이 임명 제청한 교장 2명에 대해 교육부가 거부했다. 개청 이래 처음으로, 광주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27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교육부로부터 광주교육청의 교장 신규·중임 대상자 23명 중 2명에 대한 중임 임용제청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장 중임(重任) 임용제청이 교육부로부터 거부당해 인사가 지연되고 공식사태를 초래한 것은 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중임 탈락 사유를 시교육청에 밝혀지 않았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들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에 중임 신청이 거부됐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들 2명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경징계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거부 사유가 없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만 중임이 거부된 결정

사유를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심의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체 중임 심사를 허술하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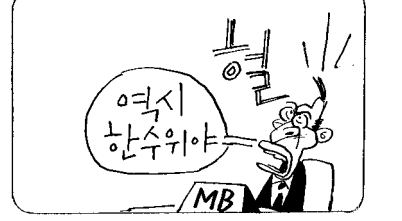
시 교육청은 중임 제청을 위해 중임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어느 곳에서도 이를 걸러 내지 못했다. 중임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교장 인사가 이를 이상 늦어졌고 임용제청이 거부된 교장은 평균 1년 이상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이들 교장이 갈 예정이었던 고교와 중학교는 현재 교장 공석 사태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징계의 경우 중임 거부 사유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 원인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나원침 (8874) 김장두



### 살인미수 4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이전에 사귀던 여성과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2)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A(42)씨 3층 원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찌르고 말리던 옛 애인 B(여·39)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똥장국 맛없다" 식당 주인 폭행

○"똥장국이 맛이 없다"며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강모(52)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박모(여·58)씨 식당에서 주인 박씨가 말다툼을 하다 손찌검까지 했다는 것.

○경찰에서 강씨는 "막걸리 안주 삼아 나온 똥장국 맛이 없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주인 박씨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화를 내길래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폭력까지 쓰게 됐다"며 뒤늦은 후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4

##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과	모집인원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인문	신학과	20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8	7	5
사범	유아교육과	10	7	3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6	4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모질,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5	-	5
총계		72	31	39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 2013. 9. 4(수) ~ 13(금) · 전형일: 2013. 9. 26(목)

수시 2차모집: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 전형일: 2013. 11. 21(목)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 전형일: 2014. 1. 3(금)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대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2로 36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